

## 초등학생 학부모의 고혈압 관련 지식에 관한 조사

김진순\*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 Survey of Knowledge on Hypertension among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in-Soon Kim\*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Yuhan College*

#### = ABSTRACT =

**Objectives:** Hypertension is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s for the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also for coronary heart diseases,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hat the people have a knowledge on nature of hypertension and it's high risk in order to prevent and detect the hypertension as early as possible.

**Methods:** This study was done to find out the knowledge on hypertension of 434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Kimjae city, Jonbuk province, they were parents in grade 4, 5 and 6 attending two elementary schools. The survey took 10 days from November 20 to November 30, 2003.

**Results:** first, The highest correct answer(94.5%) was "obesity is risk factors for hypertension", followed by "hypertension is closely related with hereditary factors(91.0%) and "high sodium intake is associated with high blood pressure"(85.7%). The lowest correct answer(77.4%) was the classification of blood pressure level between normal and high. Second, Rate of blood pressure measurement for fathers was 53.7% and 54.8% in mothers. Awareness of own blood pressure by fathers was 84.1%, while 91.1% by mothers.

Third, According to blood pressure level reported by parents, fathers with normal blood pressure was 59.2%, high normal blood pressure was 12.2%, while hypertension was 28.6%. It revealed that prevalence of hypertension of fathers was higher than mother(normal: 74.5%, high normal: 7.7%, hypertension: 18.2%).

**Conclus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health education about hypertension for community people and also school students.

**KEY WORDS :** Knowledge, Hypertension, Parents

---

\* 교신저자: 422-74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5-34, 팩스: 02-2610-0921, E-mail: jskim@yuhan.ac.kr

## 서 론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신장질환등과 같은 혈관질환의 주요 요인이며 세계적으로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전체 질병부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1]. 또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이 뇌혈관 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35%, 허혈성 심장질환에 기여하는 정도는 21%라고 보고되고 있다[2]. 이와 같은 결과는 정상혈압을 유지하면 뇌혈관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각각 35% 및 21%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사망 중에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전체 지출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3-4].

2001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율은 남자 34.4%와 여자 26.5% 이지만 인구의 고령화 등의 이유로 고혈압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 그러므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는 개인건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보건 의료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고혈압을 국가의 주요 질병으로 선정하고 고혈압의 유병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국가 고혈압교육프로그램 등 고혈압의 조기 발견, 치료,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6]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고혈압 조기진단을 위한 사업 및 관리사업을 통해 고혈압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있다[7]. 고혈압 예방은 고혈압 발생을 예방하는 1차 예방과 고혈압 환자의 관리를 통해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및 기타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는 2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혈압 예방과 관리가 어느 질환보다도 어렵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혈압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서히 오랜 기간동안 진행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가 어느 질환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중 고혈압이 조절되는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7.6%, 여자가 16.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생활습관의 변화는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적은 비용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율과 음주율은 높고 운동 실천율은 낮아서 고혈압예방과 관리방안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도록 다각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5].

고혈압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병원, 보건기관, 산업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적용되고 개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아동비만이 문제가 되면서 아동의 올바른 건강습관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함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일생 중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올바른 건강지식과 행위가 평생의 건강관리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건강관리는 어느 연령층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다. 더욱이 아동비만이 증가하면서 혈압상승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고혈압 관리 사업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에게까지 고혈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고혈압에 대한 인식율을 제고시키는데 유용한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고혈압 위험요인과 식습관 및 운동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을 통하여 고혈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혈압측정을 권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고혈압인지를 확산시킨다는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은 고혈압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생인 자녀를 통

하여 학부모에게 접근한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대국민 고혈압 홍보의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목적은 학부모의 고혈압관련 지식, 혈압측정과 자기혈압인지정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 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조사대상지역은 전라북도의 군 지역에서 도농 복합 시 지역으로 승격된 김제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에서 보건소와 협력하여 초등학생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관심이 있는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를 선정하여 4,5,6학년 학생 전원인 43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학부모의 정의는 전통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며 함께 거주하고 자녀를 보살피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학생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와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 조사 대상 2개 학교의 보건교사는 보건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건강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초등학생 4,5,6학년 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저학년보다 건강지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아동비만과 관련하여 고혈압 발생과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시 인지능력을 기대할 수 있고 교육내용을 부모님께 전달하는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수업시간에 4,5,6학년 학생들에게 고혈압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과 학생들의 식사습관 및 신체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고혈압을 이해시키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생용 고혈압 교육교재와 보건교사용 고혈압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고혈압 지

식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은 간단하고, 짧은 문장, 그리고 그림으로 구성하였고 고혈압의 1차 예방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었다.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3회 실시되었고 교육내용을 부모님께 전달하도록 했고 전달내용의 확인은 숙제로 제출하여 점검하였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부모 중 한분이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토록 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30일 까지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및 연령별인지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고혈압관련 지식 정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혈압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잴 필요가 없다”, “고혈압의 수치”, “유전적 소인과 고혈압 예방 관계”, “소금섭취와 고혈압 관계”, “고혈압의 특성”, “비만과 고혈압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고혈압 관련 지식 정도를 대변하는 6개 문항의 개발은 국민고혈압사업단에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자료로 개발한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혈압 측정 여부와 자녀들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교육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본 조사는 실태파악 성격의 고혈압관련지식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자료 분석을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에서 사실 및 실증적 자료제시(fact finding)를 나타내는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성별로서 남·녀, 연령 및 학교별 고혈압관련지식 정도는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chi^2$ -test)으로 하였다.

## 결 과

4 초등학교 학부모의 고혈압 관련 지식에 관한 조사

표 1. 학생들 학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계	남자	여자
연령(세)	434(100.0)	133(30.6)	301(69.4)
30-39	241( 55.5)	35(26.3)	206(68.4)
40-49	177( 40.8)	93(69.9)	84(27.9)
50이상	16( 3.7)	5( 3.8)	11( 3.6)
학교			
K학교	250(100.0)	78(31.2)	172(68.8)
J학교	184(100.0)	56(30.4)	131(71.1)

표 2. 학생들 학부모의 고혈압관련 지식정도

단위 : 명(%)

내용(N=434)	맞다	틀리다	모른다	계
1. 혈압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잴 필요가 없다	9.0	86.8	4.1	100.0
2. 고혈압은 높은 혈압이 140이상, 아래 혈압이 90이상을 말한다.	77.4	16.3	6.2	100.0
3. 고혈압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환이므로 직계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특별히 고혈압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91.0	3.7	5.3	100.0
4.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 질환으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고혈압에 걸린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85.7	6.5	7.8	100.0
5. 지나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킨다.	88.5	3.2	8.3	100.0
6.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에 더 걸리기 쉽다.	94.5	3.9	1.6	100.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434명으로서 남자는 133명으로 30.6%, 여자는 301명으로 69.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55.5%, 40~49세가 40.8%, 50세 이상이 3.7%로 나타났다. 연령 및 성별에서는 여자응답자는 30~39세가 69.4%로 높았던 반면 남자 응답율은 40~49세가 69.9%로 높았다. 학교별 응답율은 양교 모두에서 여자 응답율이 각각 68.8% 및 71.7%로서 남자보다 높았다(표 1).

2. 학생들 학부모의 고혈압 관련 지식

응답자의 고혈압 관련 지식정도는 표 2, 3과 같다. 총 6개 문항으로서 정답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은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에 더 걸리기 쉽다”로 94.5%로 나타났다. 그 다음 문항은 “고혈압은 유전적 소인이 있으므로 직계가족 중에 고혈압환자가 있으면 특별히 고혈압 예방에 신경을 써야한다”에 91.0%였다.

“지나친 소금섭취는 혈압을 상승 시킨다”에 88.5%, “혈압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잴 필요가 없다”에 86.8%,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 질환으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혈압에 걸린 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에 85.7%, “고혈압은 높은 혈압이 140이상, 아래혈압이 90이상을 말한다.”에 77.4%의 정답률을 나타냈다(표 2).

3. 성별 학생들 학부모의 고혈압 관련 지식

성별 응답자의 고혈압 관련 지식은 6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포 상에서 남자 응답자의 지식이 여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문항이 “고혈압은 높은 혈압이 140이상, 아래 혈압이 90이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틀리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여자가 17.9%인 반면 남자는 12.8%였다.

표 3. 성별 학생들 학부모의 고혈압의 관련 지식정도

단위 : 명(%)

내 용	남자 (N=133)			여자(N=301)			P-value
	맞다	틀리다	모름	맞다	틀리다	모름	
1. 혈압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쟈 필요가 없다	8.3	85.7	6.0	9.3	87.4	3.3	0.416
2. 고혈압은 높은 혈압이 140이상, 아래 혈압이 90이상을 말한다	78.9	12.8	8.3	76.7	17.9	5.3	0.240
3. 고혈압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환이므로 직계 가족중에 고혈압환자가 있으면 특별히 고혈압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88.0	3.8	8.3	92.4	3.7	4.0	0.183
4.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 질환으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고혈압에 걸린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83.5	6.0	10.5	86.7	6.6	6.6	0.378
5. 지나친 소금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킨다.	86.5	3.0	10.5	89.4	3.3	7.3	0.530
6.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에 더 걸리기 쉽다.	94.7	3.0	2.3	94.4	4.3	1.3	0.638

그러나 “고혈압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환이므로 직계 가족 중에 고혈압환자가 있으면 특별히 고혈압 예방에 신경을 써야한다”에 “맞다”고 옳게 응답한 비율이 여자가 92.4%인 반면 남자는 88.0%였고 “모른다”에 남자가 8.3%로서 여자의 응답을 4.0%보다 약 2배로 높게 나타냈다.

“혈압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쟈 필요가 없다”에 옳게 응답한 비율이 남자는 85.7%, 여자는 87.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 질환”이라는 문항에 옳게 응답한 비율로 남자(83.3%)와 여자(86.7%)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에 더 걸리기 쉽다”에는 남?녀 공히 “맞다”고 옳게 응답한 비율이 각각 94.7%, 94.4%로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지나친 소금섭취는 혈압을 상승 시킨다”에 “맞다”라고 옳게 응답한 비율이 여자가 89.4%로서 남자 86.5%보다 높았고, “모른다”의 응답율도 남자가 10.5%로서 여자 7.3%보다 높았다 (표 3).

#### 4. 학생들 학부모의 혈압측정여부

학부모의 혈압측정여부는 부부에게 각각 답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혈압을 측정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아버지 응답자의 측정비율은 53.7%, 미측정은 46.3%로 나타났으며 30-39세 연령집단은 측정비율이 52.8%, 40세 이상은 54.0%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학교별 측정비율은 K학교는 48.8%인 반면 J학교는 60.3%로서 J학교 아버지 학부모의 측정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7).

어머니학부모의 혈압측정비율은 54.8%가 측정을, 45.2%는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측정비율은 30-39세 연령의 측정율이 57.3%, 미측정이 42.7%인 반면 40세 이상은 측정이 50.3%와 미측정이 49.7%로 나타났다.

학교별 어머니의 혈압 측정율은 J학교가 63.0%인 반면 K학교는 48.8%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3) (표 4, 표 5).

표 4. 연령 및 학교별 학생들의 아버지 혈압측정 여부 단위 : 명(%)

	계	측정	미측정	P-value
연령(세)	434(100.0)	233(53.7)	201(46.3)	
30-39	108(100.0)	57(52.8)	51(47.2)	0.827
40이상	326(100.0)	176(54.0)	150(46.0)	
학교				
K학교	250(100.0)	122(48.8)	128(51.2)	0.017
J학교	184(100.0)	111(60.3)	73(39.7)	

표 5. 연령 및 학교별 학생들의 어머니 혈압 측정여부 단위 : 명(%)

	계	측정	미측정	P-value
연령(세)	434(100.0)	238(54.8)	196(45.2)	
30-39	279(100.0)	160(57.3)	119(42.7)	0.158
40이상	155(100.0)	78(50.3)	77(49.7)	
학교				
K학교	250(100.0)	122(48.8)	128(51.2)	0.003
J학교	184(100.0)	116(63.0)	68(37.0)	

표 6. 연령 및 학교별 학생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혈압인지 정도 단위 : 명(%)

	계	알고있다	모른다	P-value
연령(세)	233(100.0)	196(84.1)	37(15.9)	
30-39	57(100.0)	50(87.7)	7(12.3)	0.392
40이상	176(100.0)	146(83.0)	30(17.0)	
학교				
K학교	122(100.0)	103(84.4)	19(15.6)	0.893
J학교	111(100.0)	93(83.8)	18(16.2)	

5. 학생들 학부모의 자기 혈압 인지 정도

자기혈압인지여부와 혈압정도는 혈압을 측정하였다고 응답한 분들에게 자신의 혈압을 알고 있으며, 안다고 응답했을 경우 혈압을 JNC7 (Joint National committee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분류기준에 의거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버지 학부모는 자기혈압을 “알고 있다”에 84.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30-39세는 87.7%가 40세 이상은 83.0%가 “알고 있다”에 응답하여 알고 있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였다. 학교별로도 “알고 있다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84.4 및 83.8%로 나타났다(표 6).

자기 혈압을 알고 있는 아버지 학부모 196명 중 59.2%인 116명은 정상혈압군에 속하였고 12.2%인 24명은 고혈압 전단계였고, 28.6%인 56명은 고혈압으로 분류되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39세와 40세 이상은 혈압분류에서 정상혈압이 각각 60.0% 및 58.9%로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학교별 혈압 분류 분석결과는 K학교는 정상이 56.3%, 고혈압 전단계가 14.6%인 반면 J학교는 정상이 62.4%, 고혈압 전단계가 9.7%로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어머니 학부모는 자기혈압을 알고 있는 정

표 7. 연령 및 학교별 학생들 아버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혈압정도 단위 : 명(%)

	전체	혈압분류			P-value
		정 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연령(세)	196(100.0)	116(59.2)	24(12.2)	56(28.6)	0.990
30-39	50(100.0)	30(60.0)	6(12.0)	14(28.0)	
40 이상	146(100.0)	86(58.9)	18(12.3)	42(28.8)	
학교					0.527
K학교	103(100.0)	58(56.3)	15(14.6)	30(29.1)	
J학교	93(100.0)	58(62.4)	9( 9.7)	26(27.9)	

표 8. 연령 및 학교별 학생들의 어머니 자신들의 혈압인지 단위 : 명(%)

	계	알고있다	모른다	P-value
연령(세)	238(100.0)	217(91.1)	21( 8.8)	0.954
30-39	160(100.0)	146(91.3)	14( 8.7)	
40이상	78(100.0)	71(91.0)	7( 9.0)	
학교				0.419
K학교	122(48.8)	113(92.6)	9( 7.4)	
J학교	116(63.0)	104(89.7)	12(10.3)	

표 9. 연령 및 학교별 학생들 어머니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혈압 정도 단위 : 명(%)

	전체N(%)	혈압분류			P-value	
		정 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연령(세)	220(100.0)	163(74.1)	17(7.7)	40(18.2)	0.616	
30-39	146(100.0)	111(76.0)	11(7.5)	24(16.4)		
40 이상	74(100.0)	52(70.3)	6(8.1)	16(21.6)		
학교		217(100.0)	160(73.7)	17(7.8)	40(18.4)	0.553
K학교	113(100.0)	85(75.2)	10(8.8)	18(15.9)		
J학교	104(100.0)	75(72.1)	7(6.7)	22(21.2)		

도가 91.1%, 모르는 경우가 8.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알고 있다는 비율이 30-39세가 91.3%, 40세 이상이 91.0%로서 같은 수준이었다. 학교별로 어머니 학부모의 혈압을 알고 있는 비율이 각각 92.6% 및 89.7%로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표 8).

어머니의 혈압분류 분석결과 정상이 74.1%, 고혈압 전단계가 7.7%, 고혈압이 18.2%로 나타났으며 연령별은 30-39세는 정상이 76.0%, 40세 이상이 70.3%로 나타났고, 고혈압은 각각 16.4% 및 21.6%로서 40세 이상의 고혈압이 30-39세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별로 어머니들의 혈압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표 9).

6. 자녀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정보전달 여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서 숙제형식으로 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고혈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혈압측정을 권유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지식을 전달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들었다”가 76.5%, “못 들었다”가 23.5%로 나타났다. 학교 별에서는 J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81.5%로서 K

표 10. 자녀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 단위 : 명(%)

	계	들었다	못들었다	P-value
계	434(100.0)	332(76.5)	102(23.5)	
K학교	250(100.0)	182(72.8)	68(27.2)	
J학교	184(100.0)	150(81.5)	34(18.5)	0.021

학교 학부모가 들었다는 72.8%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1) (표 10).

### 고 찰

본 연구는 고혈압의 유병율이 증가하면서 고혈압예방이 강조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건 의료시설 및 개인접근의 예방보다는 다각적인 지역사회접근도 중요하므로 자녀들을 통한 교육을 받으므로 고혈압에 대한 인식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이 고혈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없으므로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된 고혈압에 대한 인지정도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혈압은 높은 유병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용이하며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치료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미국합동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고혈압 환자의 부수적인 치료로 혹은 분명한 치료로서 고혈압의 예방을 위하여 생활습관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고혈압 관리에서 고혈압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보건후생성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고혈압인지와 치료율의 상승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60%정도 그리고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53%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자에서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가 현저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

현재 우리나라의 고혈압인구는 성인의 20-

25%, 그 중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이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은 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 받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34%, 일본은 22%라고 보고되고 있다[8]. 이렇듯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라는 별명처럼 고혈압은 환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합병증을 유발한다.

높은 고혈압 유병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39%-63.4%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9-10]. 충북지역 보건 진료원 회에서 관할 지역주민 9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혈압 인지율은 66.1%로 나타났는데[11], 본 연구결과 고혈압 인지율은 77.4%로 나타나서 기존연구의 인지율 66.1%보다 높았으나 이는 조사대상수와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고혈압 관련지식을 보편화 할 수 있는 6개 문항의 정답률이 77.4%-9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혈압측정수준은 아버지 학부형이 53.7% 및 어머니 학부형의 54.8%로서 낮게 나타났다. 즉 고혈압에 관련한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2개 학교 중에서 J학교는 개발지역 즉, 시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고 K학교는 개발 이전의 농촌형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역 특성 별 인지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한 결과 부모의 혈압측정 정도가 K학교보다 시 인접지역인 J학교가 높았고, 자녀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분포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의 특성(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등)에 따른 심층분석이 추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혈압을 측정했다는 학부모가 본인의 혈압을 알고 있는 비율은 비교적 높아서 84.1%-91.1% 수준이었다. 고혈압군 중 자신의 혈압을 알고 있는 여성의 고혈압 인지율 56.5%, 남성의 인지율 44.6%라는 연구결과[12] 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결과의 인지율이 높은 것은 자녀들을 통하여 혈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 자신이 기재한 혈압 수치를 JNC7의 기준에 의거 분류한 결과 고혈압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전 단계(12-139mmHg/80-89mmHg)에 있는 비율이 아버지 학부모는 12.2%, 고혈압(140/90mmHg)은 28.6%인 반면 어머니 학부모는 각각 7.7% 및 18.2%로서 아버지 보다 어머니들의 고혈압 유병율과 고혈압 전 단계 관리 대상 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자가 많으므로 고혈압 유병율이 32.6%로 높게 보고 된 연구 결과 보다는 낮았으며, 성별에 따른 고혈압 유병율이 농촌지역 주민 중 여성의 유병율이 30.4%보다 본 연구 결과는 18.2% 낮았으나 남성의 유병율 24.9% 보다는 본 연구 결과가 28.6%로서 다소 높았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고혈압 유병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단순히 성별에 의한 차이 보다는 남녀의 생물학적 및 생활 습관 등 관련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혈압 유병율의 차이는 조사대상 수, 연령 및 측정방법 즉 객관적인 직접 측정 혹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혈압 수치를 직접 기록하게 하는 등의 차이에 기인된다고 추측된다. 본 연구 결과 고혈압의 본질, 혈압수치, 가족력, 비만

및 소금 섭취 등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고혈압 예방 및 관리접근에서 학교라는 지역 사회와 감수성이 높고 교육 효과가 크다고 증명된 초등학생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요 약

전북지역의 김제시의 2개 초등학교 4-6학년 학부모 434명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10일간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혈압 관련 지식의 정답률은 77.4%-94.5%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고혈압에 대한 혈압수치의 정답률이 77.4%로서 제일 낮았다. 그러나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에 더 걸리기 쉽다는 응답의 정답률이 94.5%로서 높은 지식을 나타냈다.

둘째, 혈압측정을 실천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측정율이 53.7%인 반면 어머니의 측정율은 54.8%로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측정된 학부모들의 자기혈압을 알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인지율이 아버지는 84.1%, 어머니는 91.1%로서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이 작성한 자기 혈압 수치를 혈압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아버지들의 고혈압 전 단계(120-139mmHg/80-89mmHg)비율이 12.2% 및 고혈압(140/90mmHg)이 28.6%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들의 고혈압 전 단계 비율이 7.7% 및 18.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대상 접근 방법이 기존의 보건진료기관

에서 내소자를 중심으로 개인 대상 접근 방법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고혈압관련지식 수준은 비교적 높는데 이러한 지식을 생활하면서 실천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서 학교라는 지역 사회시설과 감수성이 높고 교육효과가 크다고 증명된 초등학생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에 고혈압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Report 2001
2. 국민고혈압사업단, 보건복지부. 2003년도 국민 고혈압사업단 사업보고서 II. 2004
3. 통계청. 2001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건강보험 심사평가. 통계연보, 2003
5. 보건복지부.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 검진편, 2002
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y people 2010, 2000
7. Iso H, Shimamoto T, Naito Y, Sato S, Kitamura A. *et al.* Effect of a long term hypertension control program on stroke incidence and pvevalence in a rural community in northern Japan. *Stroke* 1998; 29: 1510-1518
8. 정남식. 침묵의 사신 고혈압. *신동아* 2, 2005 (641-644쪽)
9. Meissner I, Whisnant JP Sheps SG *et al.* Detection and control of high blood pressure in the community. *Hypertension* 1999; 34: 466-471
10. Lane DA, Lip GYH. Ethnic differences in hypertension and blood pressure control in the UK. *QJM* 2001; 94(7): 391-396
11. 진미양. 충북 보건진료원 연구팀, 보건진료소 관할 농촌지역주민의 고혈압 유병율, 건강상태 및 고혈압 관리양상.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3; 14(3): 507-512
12. Ha YC, Chun HJ, Hwang HK, Kim BS, Kim JR. The prevalence, awareness, treatment and control of hypertension and related factor in rural Korea. *Korean J Prev Med* 2000; 33(4): 513-520